



이 글은 1988년 진로에서 발간한 '술의 세계'에 게재된
시인 변영로의 글을 인용 게재한 것입니다.

나의 음주변(飲酒辯)

나는 거의 이주오일생(以酒誤一生)하였다고 새삼스레 울고 불고 몸부림칠 까
닭은 호말(毫末)도 없고 사이지차(事已至此)한 바에 나의 여생이 얼마가 될지 변
절을 구자돈손(狗子豚孫)의 계명으로 아는 이상, 끝끝내 한결같이 마시고 마시고
꽃 꺾어 산(算)놓고 또 마시다가 마지막 날 도래할 때 의부(義父)나 용사처럼 혼
연취사(欣然就死)할 뿐이란 것이다.

변영로의 <酤酏四十年>序說에서

나의 음주변(飲酒辯)이라 하였지만 음주에 변(辯)이 새삼스레 있을 리 없다. 기호
물(嗜好物)이니 그저 마시는 것이다. 음주에 대하여 이유를 붙이는 것-청명(淸明)하
니 한 잔, 날씨 굿으니 한 잔, 꽃이 피었으니 한 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 잔, 기분이
창쾌(暢快)하니 또 한 잔 등등의 구차스러운 변명이나 이유를 붙이는 것은 자고유지
(自古有之)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네들은 정통주도(正統酒徒)나 순수주배(純粹酒輩)
는 아닐지 모른다. 하여간 나는 이유를 불계(不計)하고 주작(酒酌)만 대하면 자연히
수미(愁眉)가 피어지는 것이다. 나는 주주야야(晝晝夜夜) 술만 있으면 마시는데, 책
임상 내가 맡은 사무를 전폐하고, 마시기는 커녕 보기만 하여도 마시기 전부터 열락
(悅樂)하여지도록 나의 신경계통은 마비가 되었는지 이완(弛緩)된 모양이다. 다소 천
박은 한 채 그 기경(奇驚)한 사구(飼句)가 취할 점도 있어 영국의 희극작가 R.B. 세리
든의 <주덕송(酒德頌)> 일절을 파적삼아 이에 역출(譯出)하려 한다.

술병은 우리 식탁 위의 태양
 그의 양광(陽光)은 감홍색(甘紅色)술
 우리는 그의 위성들
 그의 도움 없이는 부추김 없이는
 우리만으로는 빛나지 못하리
 환락과 환희는 끝도 없어라
 그가 빼잉 일순회(一巡回)하면
 우리는 그의 차광(借光)으로 따라
 빛나리.

여하간 객스런 소린지는 모르나 나는 우리의 태양인 술의 차광을 과거 30여년간 풍우일여(風雨一如)하게 받았는데 때로는 술의 양이 지나치면 도리어 <우리의 태양>인 술에게 대광(貸光)을 하게끔 되었다. 아는 이는 아다시피 나는 호주(好酒)를 지나 탐주(耽酒)를 하였고 그간 금주 연한(年限) 몇 해를 빼놓고는 무일불취(無日不醉)하였으나 의롭지 않고 떳떳치 않은 술은 되도록 사퇴하였다. 어느 친구는 나더러 농세(弄世)를 한다지만 천만부당의 선고이다. 나는 이 백(李白)의 시골(詩骨)은 타지 못하였으니 기경비상천(騎鯨飛上天)이라든가 더 줄여 말하면 일시채석강(一時彩石江) 월희(月戲)를 하는 <풍(風)>의 생활은 모조부득(模造不得)이요, 따라서 19세기 데카당들의 어느 강렬한 자극(주로 마약류의)이 없이는 잠시도 붙이지 못하는 <식(式)>의 생활도 나오서는 취할 바 아니니 위의 두 범주에 편입될 도리가 없음은 자변(自辯)의 일이다. 그렇다고 그 양종 생활에서 탈락된 것을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할 정도의 모럴리스트다. 모럴리즘은 남이야 나의 말을 믿든 말든 나의 생활신조이다. 이 신조까지 없었더라면 그나마 나의 생활의 지주는 무너지고 말았으리라. 나는 불의와 악수는 커녕 타협하여 본 적이 없음을 오십이 지난 오늘날 자허(自許)삼아 말하여 두는 동시에 어느 권세나 금력 앞에 저두평신(低頭平身)하여 본 적조차 없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사람이란 독왕자지(獨往自至)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다.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레 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에 일률로 부과된 운동일지는 모르나 진부한 논리 그대로 인생이란 모순과 상극 속에서 부침시종(浮沈始終)한 것



은 고금(古今)이 일여(一如)인 것이다. 그렇다고 쉽사리 운명에 굴복되어서는 아니된다. 부단한 반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연(不然)이면 침체요 위축이요 패퇴가 뒤따를 것이다.

영원한 과오, 영원한 수정(修正)!

영원한 태만, 영원한 초조!

영원한 기척(棄擲), 영원의 갈구!

영원한 방산(放散), 영원의 정리!

영원의 부채, 영원의 청산!

등등이 인생 전체 불가회피의 진로이다.-아니 진로가 아니라 일종의 장벽도 철회될 것이다. 필자 또한 이 반발 모순되는 양개 원리 사이에서 방향 저주는 할망정 값싼 후퇴는 아니할 것임을 자서(自誓)하여 둔다.

백주(白晝)에 소를 타고

역시 혜화동 우거에서 지낼 때였다. 어느 하룻날 바커스의 후예들인지 유영(劉衍)의 직손들인지는 몰라도 주도(酒道)의 명인들인 공초(空超 吳相淳)·성재(誠齋 李寬求)·횡보(橫步 廉相拂) 3주선(酒仙)이 내방하였다. 설사 주인이 불주객이란대도 이런 경우를 당하여서는 별 도리가 없었을 것은 거의 상식문제인데, 주인이랍시는 나 역시 술마시기로는 결코 그들에게 낙후되지 않는 처지로 그야말로 불가무일배주(不可無一杯酒)였다.

허나 딱한 노릇은 네 사람의 주머니를 다 털어도 불과 수삼 원, 그때 수삼 원이면 보통 주객인 경우에는 3,4인이 해같은 함측하였으나 오배(五輩) 4인에 한하여서는 그런 금액쯤은 유불여무(有不如無)였다. 나는 아무리 하여도 별로 시원한 책략이 없이 궁하면 통한다는 원리와는 다르다 해도 하나의 악지혜(기실 악은 없지만)를 안출하였다. 동네에서 모인(某人) 집 사동 하나를 불러다가 몇자 적어 화동(花洞) 납작집에 있는 동아일보사로 보냈다.

당시 동아일보사의 편집국장은 고(故)고하(古下 宋鎮禹)였는데 편지 사연은 물을 것도 없이 술값 때문이었다—좋은 기고를 하여 줄 터이니 50원만 보내달라는—우리는 아이를 보내 놓고도 마음이 여간 조이지를 앓았다. 거절을 당하든지 하면 어쩌나 하였다.

10분, 20분, 30분, 한시간. 참으로 지리한 시간의 경과였다. 마침내 보냈던 아이가 손에 답장을 들고 오는데 우리 4인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것같이 한군데로 집중되었다. 직각(直覺)도 직각이지만 봉투 모양만 보아도 빈 것은 아니었다. 급기 뜯어보니 소기(所期)대로, 아니 소청(所請)대로의 50원, 우화(寓話)중의 업오리 금알 낳은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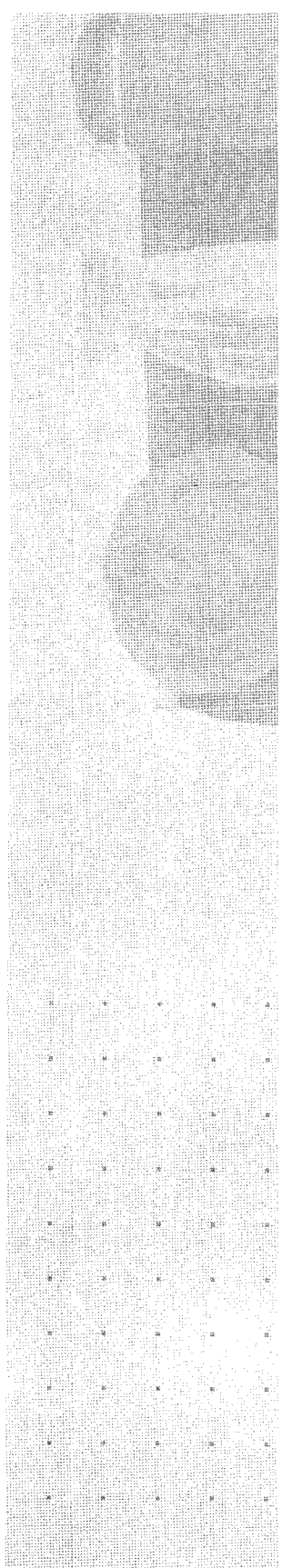
이제부터 이 50원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쓰느냐는 공론이었다. 그때만해도 50원이면 거금이라 아무리 우리 넷이 술을 잘 먹는대도 선술집에 가서는 도저히 비진(費盡)시킬 수 없었던 반면에, 낮부터 요정에를 가서 서둘다가는 안심이 안될 정도였다. 끝끝내 지혜(선악간에)의 공급자는 나로서 나는 야유를 제의한 바, 일기도 좋고 하니 술 말이나 사고 고기 근이나 사가지고 나 있는 곳에서 지척인 사발정 약수터(성균관 뒤)로 가자 하니 일동 낙(諾)타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일행은 명륜동에 있는 통신중학관(고 姜相熙군이 경영하던)으로 가서 그곳 하인 어서방(漁書房)을 불러내어 이리저리하라, 만사를 유루(遺漏)없이 분부 하였다. 우리는 참으로 하늘에나 오를 듯 유쾌하였다. 우아하게 경사진 잔디밭 위에 둘러앉았는데 어서방은 술심부름, 안주 장만에 혼자서 바빴다. 술은 소주였는데 우선 한 말을 올려다 놓고 안주는 별것 없이 남비에 고기(牛肉)를 끓였다.

참으로 그날에 한하여서는 쾌음(快飲), 호음(豪飲)하였다. 객담(客談)·고담(古談)·농담(弄談)·치담(痴談)·문학담(文學談)을 순서없이 지껄이며 권커니 잣커니 마셨다. 이야기도 길고 술도 길었다. 이러한 복스런 시간, 길이 계속되기를 빌며 마셨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고금 무류의 대기록을 우리 4인으로 하여 만들게 할 천의(天意)랄까, 하여간 국면이 일변되는 사태가 의외에 발생하였다.

그때까지는 쪽빛같이 푸르고 맑던 하늘에 난데없는 검은 구름 한 장이 떠돌더니, 그 구름장이 삼시간에 커지고 퍼져 온하늘을 덮으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유연작운(油然作雲), 패연하우(霏然下雨) 바로 그대로였다.

처음에 우리는 비를 피하여 볼 생각도 하였지만 인가 하나 없는 한데이고, 비는 호



세있게 나리어 속수무책으로 살이 불 지경으로 흠뻑 맞았다. 우리는 비록 쪼루루 비 두루마기를 하였을망정 그때의 그 장경(壯景)-산중취우(山中驟雨)의 그 장경-은 필 설난기(筆舌難記)였다. 우리 4인은 불기이동(不期而同)으로 만세를 고창하였다.

그 끝에 공초 선지식(善知識)공초식 발언을 하였다. 참으로 기상천외의 발언이었던 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모조리 옷을 찢어 버리자는 것이었다. 옷이란 워낙 대자연과 인간 두 사이의 이간지물(離間之物)인 이상, 몸에 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듯도 한 말이었다. 공초는 주저주저하는 나머지 3인에게 시범차로인지 먼저 옷을 찢어 버렸다. 남은 사람들도 천질이 그다지 비겁치는 아니하여 이에 호응하였다. 대취한 4나한(裸漢)들 광가난무(狂歌亂舞)하였다. 서양에 Bacchanalian orgy(바키스 식 躁亂이란 뜻)란 말이 있으나 아무리 광조(光躁)한 주연이라 해도 이에 비하여서는 불급(不及)이 원의(遠矣)일 것이다.

우리는 어느덧 언덕 아래 소나무 그루에 소 몇필이 매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발언이거나 제의였던지 이제 와서 기억이 미상하나 우리는 소를 잡아 타자는 데 일치하였다. 옛날에 영척(甯戚)이나 소를 탔다고 하지만 그까짓 영척이란 놈이 다 무엇이나. 그 따위 것도 소를 탔는데 우린들 못탈 배 어디 있느냐는 것이 곧 논리이자 동시에 성세(聲勢)였다.

하여간 우리는 몸에 일사불착한 상태로 그 소들을 잡아타고 유유히 비탈길을 내리고 풀물(소나기로 해서 갑자기 생긴)을 건너고 공자(孔子) 모신 성균관을 지나서 큰 거리까지 진출하였다가 큰 봉변 끝에 장도(壯圖-시중까지 오려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애주(愛酒)의 심도(深度)

모든 것에 아낌 없는 나는 술에 대하여서만은 유난히도 인색하였다. 인색이라니 말이지 인색은 내가 마시고 남에게 권하는 데 인색하단 말이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호봉(好朋)만 상대하면 피차에 쾌음(快飲)하기를 즐겼던 바 문제는 상대방이 술 한 잔만 흘러도 술이 가까와서 술 흘리는 친구를 밍게 불 지경으로 술 한방울에 인색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일적 천금의 원리를 나이상으로 체득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나는 집에서나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병이면 병, 주전자면 주전자, 주배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다. 과장 같지만 술이 한금씩 줄 때마다 생명의 한토막이 끊김을 느꼈다. 더우기 돈이 넉넉치 못할 때는 그리하였다. 그다지도 안타까운 술이 연석 같은 곳에서 천대를 당할 때처럼 나는 불쾌를 느끼는 적은 없었다. 흘리고 쏟고 었지르는 것은 술이 혼한 탓도 있겠지만 어차어피(於此於彼) 남이 대는 술이니 아껴 무엇하라는 태도로 술을 마시는 천장부(賤丈夫)들을 나는 심저(心底)로부터 증오하였다. 일적주(一適酒)의 가치를 모르는 그 우맹(愚氓)들이 민연(憫然)하여 보였다.

하여간 나는 술에 대해서 무지(無底)한 관심이 있어 애주 정도를 지나서 탐주(探酒), 익주(溺酒)하였지만 내가 의식하고 기억하는 한에서 술 한방울이라도 허비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토록 사랑스런 술을 나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위 대동아 전쟁통에 참으로 굶주렸다. 말하자면 주란(酒亂)을 빠져리게 치른 것이다. 한잔 술에는 원근(遠近)이 없었다. 술만 있고 술만 있을 듯한 곳이면 전후(前後)를 불계(不計)하고 찾아가는 것이었다.

또〈나라베〉술 이야기가 나지마는 지금껏도 기억에 어제 일같이 새로운 것은 현충무로(당시 본정통)에 있던 금강산이라는 5시 정각이면 개문하는 술집(주간은 다방)에를 3시경만 되면 쓴살같이 가서 1·2·3착을 다투는 것이었다. 주는 것은 1인당 일본 브랜드 두 컵(극히 적은)씩이었는데 눈치 있고 민속하게만 동작을 한다면 역시 2·3회는 차례가 간 것이었다. 가령 2회면 네컵, 3회면 여섯컵으로 불주객과 작반이 될 때에는 물론 그 배였다. 참으로 악전고투랄까, 나는 요갈(療渴)하기에 그와 같이 고초를 치르고 겪었다.

이와 같이 구차스럽고 군색스럽게라도 몇 잔을 얻어 먹고 길거리로 나오면 잠시 기분은 도연하여지나, 걱정이 그다지도 애를 써서 얻어 먹은 술이 금시에 깨면 어쩌나 하는 것으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나는 바람이 무엇보다 싫었다. 바람이란 취기를 보유(保有)시키기는 커녕 발산시키는 임무를 언제든지 하는 장난꾼인 까닭이었다. 그리하여 술이 〈설〉취하거나 반취쯤 되었을 때 전차를 타도 술기운이 가셔지는 것이 아까워서 성염(成炎)증이라도 차창가나 운전대 옆은 피하는 것이었다. 이만하면 애주의 정도에 대한 심도를 독자들은 추측할 것이다. 일점(一點)의 과장이 아님을 사족(蛇足)삼아 부언하여 둔다.

